

문 5. <보기>의 밑줄 친 ‘깨달음’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글은 강희맹이 젊어서는 벼룩을 꺼리지 않다가 나이 들어 벼룩을 꺼리게 된 까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소한 일상의 체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잠이 많았다. 그래서 유시(酉時)에 잠자리에 들어 인시(寅時)에 일어났다. 그때는 누우면 곧장 잠이 들어서 죽은 송장마냥 온몸의 기운이 멈추고 호흡이 희미해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추위도 추운 줄 모르고 더위도 더운 줄 몰랐다.

기운이 고요히 가라앉고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이 잠잠해, 제 아무리 천둥 벼락이 이마를 지나치고 물불이 앞을 막아도 두려워할 줄 몰랐다. 하물며 하찮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 벼룩 때문에 근심했겠는가! 이것은 내 기운과 감정이 잠과 더불어 한가지여서 뜻이 나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운과 감정이 잠과 한가지이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이 해를 입히지 못하고, 뜻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는 일 이외에 다른 무엇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근심과 걱정이 가슴에 가득 차 정신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전에 내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일도 때때로 나를 덮쳐 해를 입히는 것이 너무도 심하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고통을 느끼면 마침내 원수처럼 여겨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고 교묘하게 피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기운과 감정이 온전하지 않아 뜻이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나를 찾아와 해를 입히고, 온갖 사물이 내 근심과 걱정이 된다. 온전히 잠에만 빠져도 바깥의 사물이 감히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기운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길러 닦는 데 있어서라!

- ① 나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② 편안한 잠은 기운과 감정을 길러 닦는 방편이다.
- ③ 근심과 걱정은 나의 기운과 감정에 달려 있다.
- ④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문 6. ㉠ ~ ㉣에 들어갈 문법 용어로 옳은 것은?

‘미친짓’은 틀린 표기이다. ‘미친 짓’으로 써야 맞다. ‘짓’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와 행동을 말하므로 ‘미친 짓’은 ‘우아한 부인’과 같이 (㉠)와 (㉡)의 자연스러운 통사적 결합이다. 따라서 ‘미친 짓’을 하나의 단어 즉, (㉢)로 인정하여 ‘미친짓’으로 붙여 쓸 이유가 없다. 다만, ‘짓’이 (㉣)에 연결되어 ‘눈짓’과 같이 쓰일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쓴다.

- | ㉠ | ㉡ | ㉢ | ㉣ |
|-------|-----|-----|-----|
| ① 형용사 | 명사 | 합성어 | 명사 |
| ② 관형사 | 명사 | 파생어 | 대명사 |
| ③ 형용사 | 대명사 | 합성어 | 명사 |
| ④ 관형사 | 대명사 | 파생어 | 대명사 |

문 7. 밑줄 친 ‘이런 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었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노라고 꼭꼭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꿈벅거렸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의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사(豪奢)야…… 호살세.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런 호사를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런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음…….”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중에서

- ①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 ② 조객들 가운데 울음을 삼키노라고 꼭꼭 하는 사람도 있었다.
- ③ 안경화의 뒤를 따라 한 이십 명이 관 앞에 와 꿈벅거렸다.
- ④ 서 참의(參議)가 조사(弔辭)를 하였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향 마을의 고샅은 비좁고 지저분했다.
고샅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 ② 그들은 마을길을 잡지 않고 에음길로 갔다.
에음길 :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 ③ 가풀막을 내려올 때 나는 발을 헛디더 넘어질 뻔하였다.
가풀막 :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 ④ 난달이었던 별채 주변을 사랑채 담장과 잇달아 담을 쌓았다.
난달 :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

문 16. 다음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翩翩黃鳥 / 雌雄相依 / 念我之獨 / 誰其與歸

- ① 대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 ③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문 17.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망인(未亡人):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 ② 불초(不肖): 아버지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함. 또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 ③ 사숙(私淑): 스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나 인격을 닦음.
- ④ 납량(納涼):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문 18. 다음 기록으로 볼 때 ㉠ ~ ㉣ 중 그 언어가 부여어(夫餘語)와 가장 차이가 큰 것은?

- ㉠ 高句麗: 東夷舊語 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 ㉡ 東沃沮: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 ㉢ 濊: 其耆老舊自謂 與句麗同種 (中略) 言語法俗
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 ㉣ 挹婁: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 『三國志』‘魏志 東夷傳’ 중에서

- ① ㉠ ② ㉡
- ③ ㉢ ④ ㉣

문 19. ㉠, ㉡에 들어갈 한자로 적절한 것은?

生(㉠)吾前 其聞道也 固先(㉠)吾 吾從(㉡)師之
生(㉠)吾後 其聞道也 亦先(㉠)吾 吾從(㉡)師之

— 『古文眞寶』 중에서

- | | |
|-----|---|
| ㉠ | ㉡ |
| ① 如 | 以 |
| ② 乎 | 而 |
| ③ 於 | 於 |
| ④ 若 | 乎 |

문 20.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옳은 것은?

兩人對酌山花開
一盃一盃(㉠)一盃
我醉欲眠卿且去
明朝有意抱琴來

— 李白, ‘山中與幽人對酌’

- ① 復 ② 浮
- ③ 簿 ④ 釜